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서유기

XI
YOU
JI

오승근
안익환 역

8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서유기

오징어책
원작과역

3

조각판
출판사
조각판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西游记. 3: 朝鲜文 / (明) 吴承恩著; 安义运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70-9

I. 西… II. ①吴…②安… III. 章回小说—中国—明代—
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200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80 年 5 月
第 2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51 회 손오공의 온갖 계책 수포로 돌아가고
 물과 불로도 요괴를 정복하지 못하다 /1
- 제 52 회 오공은 결집에 금두동에서 분탕을 치고
 여래는 은근히 요괴의 주인을 알려준다 /18
- 제 53 회 삼장은 내물을 잘못 마셔 잉태를 하고
 오정은 우물을 길어다 태를 없애준다 /37
- 제 54 회 삼장은 서천길에서 녀인국을 지나가고
 오공은 계책을 써서 연화에서 벗어나다 /56
- 제 55 회 요괴는 색으로 삼장을 유혹하고
 삼장은 용케도 본분을 지켜내다 /75
- 제 56 회 손대성은 결집에 좀도적을 때려죽이고
 삼장은 어리석게 미후왕을 돌려보내다 /94
- 제 57 회 진짜오공은 락가산에서 억울함을 설파하고
 가짜미후왕은 수렴동에서 문첩을 읽어보다 /114
- 제 58 회 두 오공은 하늘땅을 소란시키고
 한몸의 공과 이뤄짐이 조련치 않다 /131
- 제 59 회 삼장이 화염산에 이르자 길이 막히고
 오공은 처음으로 파초선을 훔쳐내다 /148
- 제 60 회 우마왕은 싸우다가 연회장에 찾아가고
 손행자는 두번째로 파초선을 빼앗다 /169
- 제 61 회 저팔계는 오공을 도와 마왕을 이겨내고
 손행자는 파초선을 세번째로 가져오다 /186
- 제 62 회 마음을 닦고 때를 씻어 불탑을 쓸고
 마왕을 묶어 바른 길로 이끌어들이다 /204

- 제 63 회 두 중은 요괴를 무찔러 룡궁을 들부시고
못 성현들은 오공을 도와 보물을 되찾다 /221
- 제 64 회 형극령(荊棘嶺)에서 오능은 길을 헤쳐나가고
목선암(木仙庵)에서 삼장은 시를 지어보다 /239
- 제 65 회 요괴는 가짜퇴음사를 만들어놓고
삼장네 일행은 큰 재난에 맞다들다 /261
- 제 66 회 여러 천신들 요괴를 당해내지 못하고
미륵부처는 마침내 요괴를 사로잡다 /277
- 제 67 회 타라장에서 요괴를 없애여 선심이 안정되고
오물을 피해 길을 에도니 도심이 맑아지다 /295
- 제 68 회 주자국에서 당승은 전생을 론하고
어전에서 오공은 의원노릇을 하다 /313
- 제 69 회 오공은 밤중에 환약을 빚어내고
국왕은 연회에서 요괴를 말하다 /331
- 제 70 회 요괴는 보물로 불모래를 내뿜고
오공은 계책으로 자금령을 훔치다 /351
- 제 71 회 오공은 가짜이름으로 요괴를 죽치고
관음은 현신하여 금모후를 잡아간다 /371
- 제 72 회 반사동(盤絲洞)의 일곱 요정은 삼장을 미혹시키고
탁구천(濯垢泉)에서 저팔계는 어쩔바를 모르다 /389
- 제 73 회 요괴들은 원한을 품고 삼장을 독살케 하고
오공은 도움을 받아 요괴의 금빛을 깨뜨리다 /409
- 제 74 회 장경은 마왕의 사나움을 알려주고
오공행자는 둔갑술로 재주를 부리다 /430
- 제 75 회 오공은 보배병에 음양의 구멍을 뚫어내고
마왕은 오공에게 잡혀 대도로 돌아오다 /449

제 51 회

손오공의 온갖 계책 수포로 돌아가고
물과 불로도 요괴를 정복하지 못하다

금고봉을 빼앗긴 제천대성 손오공은 싸움에서 지고 돌아와 금두산등성이우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스승님! 저의 소원이라면—

거룩하신 부처님의 은덕속에서
영원토록 스승님과 함께하며
수행하고 고해에서 벗어나
같은 인연, 같은 장래로
신통력을 나타내고 불도를 통달하려 했건만
금고봉마저 잃은 적수공권 신세로
어이 공을 이루오리까?”

오래도록 슬픔과 탄식속에 잠겨있던 오공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저 요괴놈이 나를 알고있는것 같아. 방금도 저놈은 “과연 천궁을 소란시키던 그 숨씨로다!” 하고 나를 칭찬했었지. 그러니까 저놈은 진세의 보통요괴가 아니라 천계의 흉악한 별이 범심을 일으켜 하계로 내려온것임이 틀림없어. 아무튼 우선 하늘로 올라가 저놈이 어디서 내려온 놈인가 조사해보기로 하자.)

이렇게 작정한 오공은 급히 몸을 번뜩여 구름을 일으키더니 곧바

로 남천문밖에 이르렀다. 문득 광목천왕이 오공을 발견하고 마주나와 인사를 건넸었다.

“손대성은 어디로 가시오?”

오공도 마주 답례를 하였다.

“난 옥제님을 만나볼 일이 있어서 왔소만 천왕께서는 여기서 무엇 하시는데요?”

“오늘은 내가 남천문에서 변을 서기로 되어있소.”

광목천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마(馬), 조(趙), 온(溫), 관(關) 사대 원수들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대성님, 미처 마중을 나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차라도 드시지요.”

“고맙지만 그럴 여가가 없구려.”

오공은 광목과 네 원수의 결을 떠나 남천문안으로 들어갔다. 그 길로 곧추 령소보전밖에 이르니 장도룡, 갈선웅, 허정양, 구홍제 등 사대 천사와 남두육사(南斗六司), 북두칠원(北斗七元)들이 보전앞에서 그를 영접했다.

“손대성!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당승을 보호하는 수공은 끝내신거요?”

“웬걸, 아직 멀었소. 길이 멀고 요괴가 많아서 겨우 절반길을 왔을뿐이요. 지금은 금두산의 금두동에서 길이 막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요. 금두동의 시대왕이란 요괴가 당나라 스님을 채여갔기로 내가 그놈을 찾아가 한바탕 싸웠었는데 그놈은 신통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내 금고봉까지 빼앗겨버렸소. 그래서 난 그놈을 정복하지 못하고말았소. 아무래도 천계의 어느 흉악한 별이 하계로 내려간것 같은데 어느곳의 악마인지 모르겠단 말이요. 난 지금 옥제님을 찾아가 그따위 망종을 왜 잘 단속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볼 생각이요.”

허정양은 어이없어 껄껄 웃었다.

“원숭이출신이라 역시 막되게 노는구려!”

“막되게 놀아서 그런게 아니라 이 오공은 지금 한평생치고도 제 일 어려운 고비에 놓여있기로 부득이 그 단서라도 찾아보려는거요.”

이번엔 장도룡이 응수를 하였다.

“더 여러 말 할것 없이 안에다 전갈해드리면 그만 아니겠소?”

“감사하오.”

오공이 사의를 표하자 네 천사들은 그 뜻을 령소보전에 상주하고 오공을 옥제에게 배알시켰다. 오공은 어전에 나아가 큰소리로 인사를 올렸다.

“옥제님께 삼가 아뢰옵나이다. 저는 당나라 중을 보호하여 서천으로 경을 구하러 가는 길이옵니다만 도중에 고난이 많기란 이루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지경이옵니다. 이번엔 금두산 금두동에서 시대왕이란 요괴 하나를 만났사운데 그놈은 당승을 붙잡아 동굴로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 하고있나이다. 전 그놈의 소굴로 찾아가 그놈과 싸웠습니다만 그놈은 저를 아는 눈치이옵고 또神通력이 대단하여 저의 금고봉까지 빼앗아갔사옵기에 저로서는 그 요괴를 정복할수가 없었나이다. 그놈은 필시 천계의 별이 하계로 내려온것이라 생각되옵기에 이렇게 특별히 옥제님께 아뢰러 온것이옵니다. 부디 자비심을 베푸시와 성지를 내리셔서 그 흉악한 별을 알아보신 뒤에 천병을 띄워 요괴를 퇴치해주옵소서. 그래만 주옵신다면 저로서는 황송하기 이룰데 없겠나이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큰절을 개올렸다.

그러자 한쪽옆에서 그것을 보고있던 갈선웅이 웃으며 놀려주었다.

“이봐, 원숭이! 어째서 처음엔 아주 오만하더니 이젠 그렇게 공손해진거요!”

“아니, 그럴리야 있소! 문제는 지금 손에 금고봉이 없기때문이지.”

이때 옥황상제는 오공의 상주를 받아들여 즉석에서 가한사에게 어명을 내렸다.

“손오공의 상주에 따라 제천의 성수와 신왕들가운데 속세를 그리워하여 하계로 내려간자가 있는가 알아보고 곧 복명하도록 하라.”

가한장인진군(可韓丈人真君)은 어명을 받기가 무섭게 오공을 이끌고 가서 조사를 해보았다. 먼저 동, 서, 남, 북 네개 천문의 신왕과 관리들을 조사하고 버금으로 삼미원(三微垣)의 크고 작은 진인들을 조사하고 뒤이어 퇴정의 관장들인 도, 장, 신, 등, 구, 필, 방, 류를 조사하고 맨나중에 삼십삼천의 천신들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모든 천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처소에 있었다. 다시 이십팔수 가운데의



서유기

동칠수인 각, 항, 저, 방, 삼, 미, 기로부터 서칠수인 두, 우, 녀, 허, 위, 실, 벽 그리고 남칠수와 북칠수에 이르기까지 죄다 조사해보았다. 그러나 이십팔수의 별들도 죄다 제자리에 머물러있었다. 그리하여 이번엔 태양, 태음, 수, 화, 목, 금, 토 칠정(七政)과 라후, 계도, 기, 폐사여(四餘)를 조사했다. 하지만 천계의 모든 천신과 별들은 하나도 범심을 일으켜 하계로 내려간자가 없었다.

오공은 장인진군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난 구태여 다시 령소보전으로 올라가지 않겠소. 옥제님께 시끄러움을 끼치기가 안되었단 말이요. 그러니 혼자 돌아가 아뢰드리시오. 난 여기서 소식을 기다리고있겠소.”

가한장인진군이 돌아가고나자 오공은 밖에서 한동안 기다리면서 제풀에 시 한수를 지어 읊조리었다.

바람 맑고 구름 걷혀 하늘나라 태평스럽고
천신들 안정하고 못별이 밝아 상서로운데
하한은 안녕하여 천지가 모두 평화롭고
오방과 팔극에 창칼과 군기가 안 보이누나.

한편 가한장인진군은 조사한 결과를 옥제에게 상주하였다.

“천계의 모든 별들과 각 곳의 천신들은 하나도 자리를 비운자가 없사오며 아무도 범심을 일으켜 하계로 내려간자가 없나이다.”

옥제는 그 말을 듣고 곧 어명을 내렸다.

“그렇다면 손오공더러 천장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계에 내려가 요괴를 잡도록 조치하라.”

사대 천사들은 어명을 받들고 곧 령소보전을 나와 그 뜻을 오공에게 전하였다.

“손대성! 옥제님께서는 천궁에 아무도 범심을 일으켜 하계로 내려간자가 없으니 대성더러 몇몇 천장들을 골라가지고 함께 내려가 요괴를 잡도록 하라고 하셨소.”

오공은 잠간 생각해보고나서 입을 열었다.

“천계의 장군들이라 하여도 이 오공보다 못한자가 많고 나온자는 별로 없소. 언젠가 내가 천궁을 소란시켰을적에 옥제님은 십만 천병

을 동원시키고 천라지마까지 쳐놓았던거지만 나를 대적할만한 천신은 하나도 없었던 말ियो. 하긴 나중에 소성이랑만은 나하고 걸맞는 적수였지만. 그런데 지금 저 요괴의 수단이 나보다 한수 더 높은터이니 어떻게 이겨낼수 있겠소?”

오공의 미타해하는 소리에 허정양(許旌陽)이 앞질러 말했다.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 아니겠소? 그리고 ‘세상만물은 저마다 겁내는자가 따로 있다’지 않소? 게다가 어명인데 어떻게 거역하겠소? 내 생각엔 어서 천장을 선발하여 일을 그르침이 없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구만.”

“그렇다면 천은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 나로서야 어떻게 어명을 거역할수 있으며 또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갈수 있겠소? 그러니 정양 천사께서 수고스러운대로 옥제님께 이렇게 좀 상주해주시구려. 탁탑 리천왕과 나타태자를 선발하여 팔려보내시되 그들의 손에 있는 강요 무기도 함께 가지고가서 그것으로 요괴와 싸워 효험이 어떤가를 보게 해달라고 말ियो. 그래서 요괴를 잡게 되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는거고 만일 잡지 못한다면 그때에 달리 방법을 대는거지요.”

천사가 다시 옥제에게 상주하자 옥제는 즉시 리천왕 부자에게 수하의 천병들을 거느리고 오공을 돕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리천왕이 어명에 좇아 오공에게로 가니 오공은 또다시 천사에게 부탁하였다.

“옥제께서 리천왕을 보내주시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한번만 더 상주해주시오. 퇴공 둘을 더 빌려다 리천왕이 그놈과 싸우고있을 때 구름우로부터 그 요괴놈의 정수리에 벼락을 쳐서 죽여버리는것이 상책일것 같다고 말ियो.”

천사는 웃으며 흔연히 대답했다.

“아, 그건 좋도록 해드리지요.”

천사들이 그 뜻을 상주하자 옥제는 구천부에 어명을 내려 등화와 장번 두 퇴공더러 리천왕을 도와 요괴를 항복시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리천왕과 손오공은 함께 남천문을 나섰다.

그들은 순식간에 금두산에 이르렀다.

“이 산이 바로 금두산인데 저 골안에 금두동이란 요괴의 소굴이 있소. 두 부자간에 누가 먼저 나서서 저놈에게 싸움을 거시겠소?”

오공의 말에 리천왕은 구름을 낮추더니 천병들에게 양지쪽에다

진을 치게 하고나서 자기의 생각을 내놓았다.

“대성께서도 아시다싶이 내 아들 나타는 전에 96동의 요괴를 항복시킨 일이 있거니와 둔갑술이 높고 몸에는 늘 요괴를 항복시키는 무기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 역시 나타더러 먼저 싸우게 하는것이 좋겠소.”

“그렇다면 내가 태자를 안내하지요.”

나타태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위엄을 차리더니 오공과 함께 높은 산정에 뛰어올라 동굴의 입구로 다가갔다. 그런데 동문은 굳게 닫혀 있고 문앞에는 요정 하나 일췌하지 않았다. 오공은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큰소리로 웨쳤다.

“이 고약한 요괴놈아! 빨리 문을 열고 우리 스승님을 내놓아라!”

안에서 문을 지키고있던 요괴들은 급히 달려들어가 마왕에게 아뢰었다.

“마왕님! 손행자가 어린사내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싸움을 걸고있습니다.”

“원숭이녀석이 나한테 철봉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구원병을 청해온 모양이로구나. 애들아! 어서 내 무기를 가져오너라!”

줄개들이 창을 가져다바치자 마왕은 그것을 쫓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런데 마왕의 눈에 안겨든 나타태자의 모습을 보면-

만월 같은 얼굴 옥으로 빛었는가
 빨가장한 입술 박씨이발 품었는데
 영특한 두눈엔 번개불 흐르고
 시원한 이마우엔 상투머리 없었네
 수놓은 허리띠 기발인양 나뭇기고
 비단옷 해빛에 금빛으로 눈부신데
 앞가슴엔 번쩍번쩍 호심경 걸쳤고
 갑옷에 장화 신어 그 모습 뽐뽐하네
 몸집은 작아도 목소리 우렁차거니
 삼천의 도술 높은 그 이름 나타일세.

마왕은 짐짓 빙그레 웃었다.

“넌 리천왕의 셋째아들 나타태자가 아니냐? 어째서 내 집 문앞에 와서 큰소리 지르느냐?”

“요 망종 같은 요괴놈아! 네놈이 행패를 부려 동녘땅의 성승을 붙 잡아갔기때문에 내가 옥제님의 어명을 받들고 네놈을 잡으러 온거다!”

나타의 말에 마왕은 몹시 화를 내었다.

“넌 틀림없이 저 손오공의 청을 받고 왔을테지! 내가 바로 그 성승을 붙잡아온 마왕이다. 너따위 애송이에게 무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단구 그렇게 큰소리 치는거냐? 꿈작말고 내 이 창맛이나 보아라!”

그러자 태자는 참요검을 들어 마왕의 창을 막았다.

요괴와 태자사이에 싸움이 어려운것을 본 오공은 다급히 산등성으로 옮겨가 큰소리로 웨쳤다.

“퇴공들은 어데 있소? 빨리 벼락으로 요괴를 쳐서 태자를 도와 요괴를 잡도록 하오!”

등화와 장번 두 퇴공은 재빨리 구름을 잡아타고 바야흐로 벼락을 떨어뜨리려 하였다. 그런데 이때 태자가 법력을 써서 몸을 머리 세개와 팔 여섯개로 둔갑시키더니 손에 여섯가지의 무기를 들고 마왕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자 마왕도 머리 셋에 팔 여섯개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손에 세자루의 긴 창을 쥐고 태자를 막아나섰다. 태자는 또 항마의 법력을 써서 감요검, 참요도, 박요삭, 항마저, 수구, 화륜 등 여섯자루의 무기를 내던지며 “변해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무기들은 삼시에 수천수만개로 늘어나 비발과 우박처럼 마왕을 향해 날아들어갔다. 그러나 마왕은 조금도 겁내는 기색이 없이 한손으로 하얀 고리 하나를 꼬집어내더니 공중을 향해 내던지며 큰소리로 웨쳤다. “감겨들어라!” 마왕의 웨침소리와 함께 수천수만의 무기들은 마왕의 고리에 휘말려 들어갔다. 그통에 태자는 무기를 잃고 황급히 도망치고 마왕은 승리를 거두어 동굴로 돌아갔다. 공중에서 그것을 본 등화와 장번은 혀를 해해 내들었다.

“다행히 벼락을 안 내리길 잘했지. 만약 그것까지 내렸다가 저놈에게 빼앗겼다면 우린 옥제를 뵈을 면목조차 없을번했는걸.”

두 퇴공은 곧 구름을 낮추어 태자와 함께 금두산 남쪽기슭으로 내려와 리천왕을 만났다.

“요괴의 신통력이 과연 굉장합니다.”

그 말에 오공은 옆에서 깔깔 웃었다.

“그놈의 신통력은 그저 그렇지만 다루기 어려운것은 그 고리란 말이요.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는 몰라도 슬쩍 내던지기만 하면 무어나 다 끌어들이고만단 말이요.”

그러자 나타태자는 펍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손대성은 사람됨이 고약하시군요. 내가 싸움에서 지고 이렇게 고민하는것도 대성님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리어 웃고있는겁니까?”

“그래 태자만 번민하고있고 이 오공은 번민하지 않는줄 아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궁리가 나지 않아서 울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저 웃고있는것뿐이요.”

이번엔 리천왕이 한마디 끼여들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쨌거나 당신들이 방법을 대보시오. 아무튼 저 고리에 말려들지 않을것으로 대적을 해야 저놈을 잡아눕힐수 있을거요.”

오공의 말에 리천왕은 한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고리에 걸리지 않을것이라면 물이나 불이 아니겠소? 속담에도 물과 불은 사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옳은 말씀이요. 제군은 이곳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난 한번 더 천궁로 올라갔다 올테요.”

“또 천궁에 올라가서는 무얼 하시려요?”

두 뉘공이 묻는 말이였다.

“이번에는 옥제님께 상주할것 없이 남천문으로 해서 동화궁(彤華宮)에 올라가 영혹화덕성군(熒惑火德星君)더러 이곳에 내려와 불로서 저 요괴를 치게 하든지 아니면 그 고리까지 아예 녹여없애버리게 할 작정이요. 그렇다면 제군들은 무기를 되찾아 천궁으로 돌아갈수 있을거고 우리 스승님도 재난에서 풀려날수 있지 않겠소?”

오공의 말에 태자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럼 대성께서는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있을테니까요.”

오공은 상서로운 빛발을 타고 또다시 남천문밖에 이르렀다. 그러

자 광목천왕과 네 수문장들이 마중을 나왔다.

“대성개선 무엇때문에 또 오신거요?”

“리천왕이 태자를 시켜 요괴와 싸우게 했는데 태자는 첫싸움에 벌써 여섯가지 무기를 모조리 그놈에게 빼앗기고말았소. 그래서 난 지금 동화궁에 가서 화덕성군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요.”

오공의 말에 네 수문장들은 이내 그를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오공이 동화궁에 이르자 화부의 천신들은 곧 안에다 전갈하였다.

“손오공이 주인님을 찾아왔습니다.”

뒤미처 남방의 삼기화덕성군은 의관을 갖추고 나와 오공을 영접하였다.

“어저께 가한사가 찾아와 조사를 했지만 여기는 한 사람도 범심을 일으켜 자리를 뜬 자가 없는데요.”

“그건 이미 알고있습니다. 내가 온것은 그때문이 아니라 리천왕과 나타태자가 싸움에서 지고 무기까지 빼앗겼기때문에 성군의 구원을 청하러 온겁니다!”

오공의 말을 들은 화덕성군은 저으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 나타태자는 삼단해회의 대신으로서 날적부터 96동의 요괴를 정복했거니와 신통력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태자께서 이겨 내지 못하는 요괴라면 소신이 어떻게 당해낼수 있겠습니까?”

“리천왕과도 의논이 있었습시다만 천지간에 가장 무서운것이라면 물과 불일것입니다. 그 요괴에게는 남의 무기를 곧잘 휘말아들이는 고리가 있는데 무슨 놈의 보물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의논한 결과 불은 모든것을 멸망시킬수 있는것만큼 특별히 귀군을 청하기로 한것입니다. 부디 하계로 내려가 불을 놓고 요괴를 태워죽여 우리 스승님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덕성군은 그 소리를 듣더니 곧 화부의 신병들을 거느리고 오공과 함께 금두산 남쪽으로 내려갔다.

성군이 리천왕이며 퇴공들과 인사를 하고나자 리천왕이 오공에게 말했다.

“손대성! 한번 더 가서 그놈을 불러내주시오. 이번엔 내가 그놈과 대적해볼테요. 그래서 그놈이 고리를 내들게 되면 난 슬쩍 몸을

피할테니까 그 기회에 성군더러 신병들을 지휘하여 그놈을 불로 녹여 주게 합시다.”

오공은 웃으며 동감을 표시하였다.

“그렇시다. 내가 함께 가드리지요.”

그리하여 화덕성군은 태자며 두 퇴공들과 함께 높은 산정에 올라가 싸울 준비를 차리었다.

한편 오공은 금두동어구로 달려가 고향을 질렀다.

“이놈아, 문 열어라! 그리고 일찌감치 우리 스승님을 내놓아라!”

“대왕님! 손오공이 또 찾아왔습니다.”

줄개들이 들어와 급보를 전하자 마왕은 곧 부하들을 거느리고 동문밖으로 나왔다.

“이 고약한 원숭이놈아! 이번엔 또 어디서 원병을 청해왔느냐?”

마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리천왕이 불쑥 앞으로 나서며 호통쳤다.

“요괴놈아! 너 나를 알만하냐?”

마왕은 짐짓 꺾꺾 소리내어 웃었다.

“리천왕, 아들의 원수를 갚고 무기를 찾아가려고 온거요?”

“그렇다, 첫째로는 원수를 갚고 무기를 되찾기 위한거고 둘째로는 네놈을 붙잡아 당승을 구출해내기 위한거다. 꿈쩍말고 내 칼이나 받아라.”

마왕은 몸을 옆으로 돌려 리천왕의 칼을 피하더니 긴 창을 꼬나 들고 맞받아나섰다.

리천왕이 마왕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자 오공은 얼른 몸을 솟구쳐 화덕성군들이 서있는 산정으로 올라갔다.

“성군 부디 조심해주시요.”

리천왕을 상대로 긴 창을 휘두르던 마왕은 기회를 노렸다가 예의 그 고리를 꼬집어내었다. 그것을 본 리천왕은 날쌔게 몸을 빼여 상서로운 빛발을 타고 달아나버렸다.

산꼭대기에서 기다리고있던 화덕성군은 때를 놓칠세라 재빨리 화신들에게 명령을 내려 일제히 불을 지르게 하였다.

“남쪽에 불의 정령이 있다” 하였으니

화덕성군이 바로 그러하네

한점의 불꽃이 일만경 넓은 들 태운다지만
 백가지 불로 변하는 삼기의 위력에야 어찌 비하랴
 불창, 불칼, 불활, 불살들 제각기 용처가 다르고
 불룡, 불말, 불까마귀, 불쥐들 저마다 재주 각이하네
 허공에는 불까마귀 날아돌고
 산에는 불말이 내달리는데
 불쥐들이 뿔은 불길에 만리강산 붉게 물들고
 불룡들이 토한 연기에 온 세상 흐리우네
 불수레 굴러가고 불호리박 열리는가
 불기발 휘날리며 하늘에 노을이 물들고
 불망치 흔들리며 땅우에 불길이 뒤덮이네
 전단이 불소를 몬들¹⁾ 이렇거며
 주량이 척벽을 태운들 이렇기야 하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무섭게 밀려오건만 마왕은 눈섭 하나 까
 딱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었던 고리를 공중으로 집어던지더니 “취
 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룡, 불말, 불까마귀, 불쥐들을 비롯하여 불
 창, 불칼, 불활, 불살들을 모조리 끌어모아가지고 동굴로 돌아가버렸다.

손에 빈 기대박에 남지 않게 된 화덕성군은 하는수없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리천왕과 함께 산의 남쪽기슭에 내려와 앉았다.

“손대성! 그 요괴는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놈입니다. 난 오늘
 불연장을 모조리 빼앗기고말았으니 장차 어떡하면 좋겠소?”

성군의 걱정에 오공은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웃기만 하였다.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잠간 앉아들 계십
 시오. 내가 또 잠간 다녀올테니.”

“또 어디로 가시려요?”

리천왕이 묻는 말이였다.

“저놈이 불을 겁내지 않는것을 보면 반드시 물을 무서워할것입니
 다. 속담에 ‘물은 불을 끌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길로 나는 북천문

1) 전단이 불소를 몰다: 옛날에 전단이 불소를 써서 연나라군대의 진공을 물리치
 고 제나라의 칠십여개 성곽을 수복하였었는데 여기서는 그 고사로 불의 기세
 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비유하고있다.

에 올라가 수덕성군(水德星君)을 청해다 요괴의 동굴속에 물을 채워서 그놈을 빠져죽게 하고 당신들의 무기를 찾아드릴겁니다.”

“그 계획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대성의 스승님까지 물에 잘못되지 않겠소?”

리천왕이 걱정을 하자 오공은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그 점은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설사 스승님이 물에 잘못되신다 하더라도 이 오공에게 살려낼 방법이 있는거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을 너무 지체시켜드려서 매우 미안합니다.”

“그렇거든 어서 다녀오시구려.”

이번엔 화덕성군의 목소리였다.

오공은 근두운을 날리며 순식간에 북천문으로 올라갔다. 문득 고개를 들고보니 어느새 다문천왕(多聞天王)이 마중나와 인사를 건넌 것이었다.

“손대성,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수덕성군을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오호궁(烏浩宮)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천왕께서 왜 이곳에 와계신가요?”

“오늘이 바로 내가 변을 설 차례이니까요.”

이때 방, 류, 구, 필 등 사대 천장들이 다가와 인사를 하며 차라도 한잔 들고 가라고 하였다.

“고맙소만 난 일이 급해서 그럴 여가가 없구려.”

오공은 여러 천신들과 작별하고 곧추 오호궁으로 찾아갔다. 수부의 제신들은 곧 안에다 전갈을 했다.

“제천대성께서 오셨습니다.”

수덕성군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사해오호(四海五湖), 팔하사독(八河四獨), 삼강구파(三江九派)의 통왕들을 비롯하여 각처의 통왕들을 조사하여 내보내고 자기는 의관속대를 하고나와 오공을 궁전안으로 청해들었다.

“어저께 가한사가 우리 수부에 조사를 와서 범심을 일으켜 하계로 내려간 천신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과 바다의 신들을 조사하고있는중입니다.”

“그 요괴는 강하의 여느 천신이 아니라 신통력이 굉장한 요괴입